

문화재청 공고 제2019-12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4.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 (陶器 鉛釉印花文 壺 一括)	2점 (대호 1점, 소호 1점)	국 유 (국립경주박물관)
2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李寅文 筆 江山無盡圖)	1축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3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新編 聚大東 詩林 卷九~十一; 三十一~三十九)	12권 3책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4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불상 1구, 대좌 1기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참당암
5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1점	경기도 (실학박물관)
6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꾸집 일괄 (完州 葛洞 出土 銅劍銅戈 鎔范 一括)	2점 (동검 거꾸집 1점, 동검동과거꾸집 1점)	국 유 (국립전주박물관)
7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完州 葛洞 出土 精文鏡 一括)	2점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1점,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1점)	국 유 (국립전주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陶器 鉛釉印花文 壺 一括)

- 명 칭 :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陶器 鉛釉印花文 壺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2점(大壺 1, 小壺 1)
- 규 격 : 대호 : 높이 39cm, 최대둘레 118.5cm, 구경19cm, 저경 20.7cm
소호 : 높이13cm, 최대둘레 53.1cm, 구경 9cm, 저경 8.8cm
- 재 질 : 토도류(연유도기)
- 형 식 : 대호, 소호 2건으로 구성된 뚜껑이 있는 입호(立壺) 계열 항아리
- 조성연대 : 통일신라 8세기 추정
- 사 유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은 통일신라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대호(大壺)와 소호(小壺) 총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호와 소호는 제작 당시 외호(外壺)와 내호(內壺)의 용도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는지 불분명하나 유사한 형태와 문양,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같은 공방과 장인(匠人)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입자가 미세한 점토를 활용해 번조(燔造) 했고 유약은 산화납과 산화동을 섞어 녹색을 띠도록 만든 녹유계(綠釉系) 연유(鉛釉)이다. 구연부와 몸체 전반에 걸쳐 종류가 다른 인화문(印花文)을 찍었으며 문양대를 분할해서 시각적인 다양함을 추구하였다.

뼈항아리(骨壺) 계열의 통일신라 연유도기(鉛釉陶器) 항아리 중 가장 크고 문양소재가 화려하며, 통일신라시대 연유도기의 제작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록 구연부와 바닥굽 등 일부 파손으로 인해 후대에 보수를 거쳤으나 동시기 도기와 비교할 때 조형적·기술적 측면에서 독보적이며,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 측면에서도 8세기 통일신라 도기(陶器)를 대표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李寅文 筆 江山無盡圖)

- 명 칭 :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李寅文 筆 江山無盡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43.9×856.0cm
- 재 질 : 비단에 담채
- 형 식 : 두루마리(횡권)
- 조성연대 : 19세기 초
- 제 작 자 : 이인문(李寅文, 1745~1821)
- 사 유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 궁중화원으로 이름을 떨친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이 그린 것으로 총 길이 8.5m에 달하는 긴 두루마리 그림이다. 이인문은 38년 동안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畫員)을 지냈고 1795·1796·1799년 세 차례 연행(燕行)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화법(畫法)을 절충해 산수·인물·화조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다수 남겼다.

이 그림은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전통적 화제(畫題)인 ‘강산무진(江山無盡)’을 주제로 끝없이 이어지는 대자연의 풍광을 묘사한 산수화이다. 실제로 존재한 산수가 아닌 웅장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세상을 묘사한 관념적인 산수를 그린 것으로, 넓은 평원(平遠)에서 시작하다가 우뚝 솟아오른 절벽이 보이는 전반부와 험준한 산세가 중첩되어 광활하게 그려진 중반부, 그리고 다시 잔잔한 평원으로 연결되는 구성은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촉잔도(蜀棧圖)>(1768년)와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험준한 산수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촉잔도> 보다 사람과 마을이라는 풍속적 요소를 현실감 있게 결합시켰고 표현에 있어서도 붉은색과 연두색을 많이 사용해 화사한 분위기를 극대화한 점, 산의 생김새를 더욱 또렷하게 묘사해 박진감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이인문의 개성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는 한국회화사에서 보기 드문 장권(長卷)의 산수화로서 이인문의 높은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광활한 산수 표현과 정교하고 뛰어난 세부 묘사가 일관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新編類聚大東詩林 卷九~十一, 三十一~三十九)

- 명 칭 :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新編類聚大東詩林 卷九~十一, 三十一~三十九)

-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수량 : 12권 3책
- 규격 : 30.6×19.5cm(반곽 24.0×15.6cm)
- 재질 : 닥종이(楮紙)
- 판종 : 금속활자본(丙子字本)
- 형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542년(중종 37) 추정
- 사유

「신편유취대동시림」은 조선 중종 연간의 문신인 유희령(柳希齡, 1480~1552)이 고대로부터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를 모은 70권의 시선집(詩選集)으로, 기존에 간행된 시문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기적으로는 고대로부터 당대까지 왕실, 여성, 승려, 귀화인 등의 작품을 망라한 것이다. 수록 작가의 대상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체제도 시대·신분·작자의 생몰년(生沒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는 70권 중 권9~11 및 권31~30에 해당하는 책으로, 1542년(중종 37) 경에 금속활자인 ‘병자자(丙子字)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이 판본은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19권(권4~22)의 시(詩)에 저본(底本)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시의 원문도 「동문선」이나 각 작가들의 문집에 수록된 원문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16세기 우리나라 시문집 간행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서책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복본(復本)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본이자 더욱이 1516년(중종 11)년에 주자도감(鑄字都監)에서 간행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주조한 ‘병자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이다.

□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 명칭 :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참당암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수량 : 불상 1구, 대좌 1기

- 규 격 : 불상 높이 80cm, 무릎 폭 54, 대좌높이 100cm
- 재 질 : 석조
- 형 식 : 두건을 쓰고 보주를 든 지장보살좌상
- 조성연대 : 고려 말~조선 초
- 사 유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으로, 특히 불교회화에서 많이 그려진 도상이다. 온화한 표정과 불룩한 입술, 양쪽에서 드리워져서 여의두(如意頭) 형태로 마무리 된 띠 장식, 둥근 보주(寶珠)를 든 모습, 그리고 가슴에 둘러진 띠 매듭 등은 고려 말기 보살상 양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의 표현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여말 선초의 지장 신앙 및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이다. 이 시기 금동과 목조로 제작된 지장보살상은 몇 점이 전하고 있으나, 석조로 제작된 지장보살 중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한 사례는 참담암 지장보살좌상이 거의 유일하다.

대좌의 경우 보살상과 함께 조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중·하대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가늘고 긴 형태, 여의두문(如意頭文)이 새겨진 안상(眼象) 등에서 고려 중기의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므로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 명 칭 :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실학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지 16길 실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모체판: 20.5×17.0×0.3cm, 성좌판: 10.2×11.0×0.3cm
- 재 질 : 금속 및 동합금
- 형 식 : 모체판과 성좌판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천문시계
- 조성연대 : 1787년(정조 11)
- 제작자 : 유금(柳琴, 1741~1788)
- 사 유

‘혼개통헌의’는 동양의 전통 우주론인 혼천설(渾天說)과 개천설(開天說)을 하나의 원판형 의기(儀器)에 통합해 표현한 천문시계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양의

천문시계인 아스트로라브(Astrolabe)를 실학자 유금(柳琴, 1741~1788)이 조선식으로 해석해 1787년(정조 11)에 만든 천문 도구이다.

모체판(母體板)과 성좌판(星座板)으로 구성되었고 모체판 앞뒷면에 걸쳐 ‘건륭 정미년에 약암 윤선생을 위해 만들다(乾隆 丁未 爲約菴 尹先生 製)’라는 명문과 더불어 ‘유씨금(柳氏琴)’이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어 유금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약암(約菴) 유금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숙부로 18세기 학술 및 예술, 과학사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실학자이다.

모체판의 앞면 중심은 하늘의 북극을 상징하는 구멍에 핀으로 성좌판을 끼워 회전토록 하였다. 외곽을 24등분하여 맨 위에 시계방향으로 시각(時刻)을 새겼고 바깥쪽부터 남회귀선, 적도, 북회귀선의 동심원, 위쪽에 지평좌표원을 새겼다. 성좌판은 하늘의 북극과 황도(黃道) 상의 춘분점(春分點) 및 동지점(冬至點)을 연결하는 T자형으로, 축과 황도를 나타내는 황도원(黃道圓)을 한판으로 제작했으며, 특정별과 대조할 수 있도록 돌출시킨 지성침(指星針)이 11개가 있다. 모체판과 성좌판에 새겨진 자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혼개통혼도설(渾蓋通憲圖說)』에 근거한 것이지만 유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독자적인 별을 그려 넣기도 했고 원책의 실수를 바로 잡아 반영하기도 했다. 이는 유금이 『혼개통혼도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관련한 기하학에도 능통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혼개통헌의’는 서양 천문학과 기하학을 이해하고 소화한 조선 지식인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작원리와 제작의 정밀도 등에서도 18세기 조선의 수학, 천문학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과학 기기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제작되어 알려진 유일무이한 천문 도구이자 조형적, 공예기술사적 가치에 있어서도 조선의 미감(美感)을 적용해 소박한 단순미와 절제미로 동판 위에 깔끔하고 정밀하게 12황도와 24절기를 한자로 새겨, 18세기 조선의 금속 세공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다.

□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完州 葛洞 出土 銅劍銅戈 鎔范 一括)

- 명 칭 :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完州 葛洞 出土 銅劍銅戈 鎔范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죽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2점(동검 거푸집 1점, 동검동과 거푸집 1점)
- 규 격 : 동검 거푸집: 길이 33.1cm. 너비 7.4cm. 두께 3.2cm
동검동과 거푸집: 길이 32.0cm 너비 8.1cm 두께 3.2cm

- 재 질 : 석재
- 형 식 : 장방형 석판
- 조성연대 :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약 2세기)
- 사 유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은 갈통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거푸집 2점으로, 한 점은 한 쪽면에만 세형동검의 거푸집이 새겨졌고, 다른 한 점은 동검(銅劍)과 동과(銅戈)가 양면에 각각 새겨져 있다. 초기 철기시대 호남 지역의 청동기 제작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로서, 출토 고분의 편년 및 거푸집에 새겨진 세형동검의 형식 등으로 볼 때, 이 유물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실제로 사용된 후 무덤에 매납된 청동기 제작용 거푸집에 해당한다.

이 석제 거푸집은 사용 흔적이 남아 있으며, 출토 정황과 공반(供伴) 유물이 확실한 매우 드문 고대 청동기 생산 관련 유물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이다. 거푸집의 상태 및 새겨진 세형동검과 동과의 형태 등이 매우 자세하고 조각 솜씨가 탁월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거푸집들이 발견된 사례는 10여 건이지만 대부분 출토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한계이다.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이어서 출토지점과 출토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므로 그 중요성은 다른 용범들과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당시 사회의 청동기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데도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사적 중요성과 우수한 현존 상태, 조각 솜씨로 볼 때, 이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제작용 석제 거푸집은 보물로 지정해 보존 및 관리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完州 葛洞 出土 精文鏡 一括)

- 명 칭 :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完州 葛洞 出土 精文鏡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죽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2점(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1점,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1점)
- 규 격 :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 직경 14.5cm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 직경 9.1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원판에紐(紐)가 달린 청동거울

○ 조성연대 :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약 2세기)

○ 사 유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은 초기 철기시대인 기원전 2세기 경에 사용된 2점의 청동제 거울로서,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에 위치한 갈동 5호 및 7호 토광묘에서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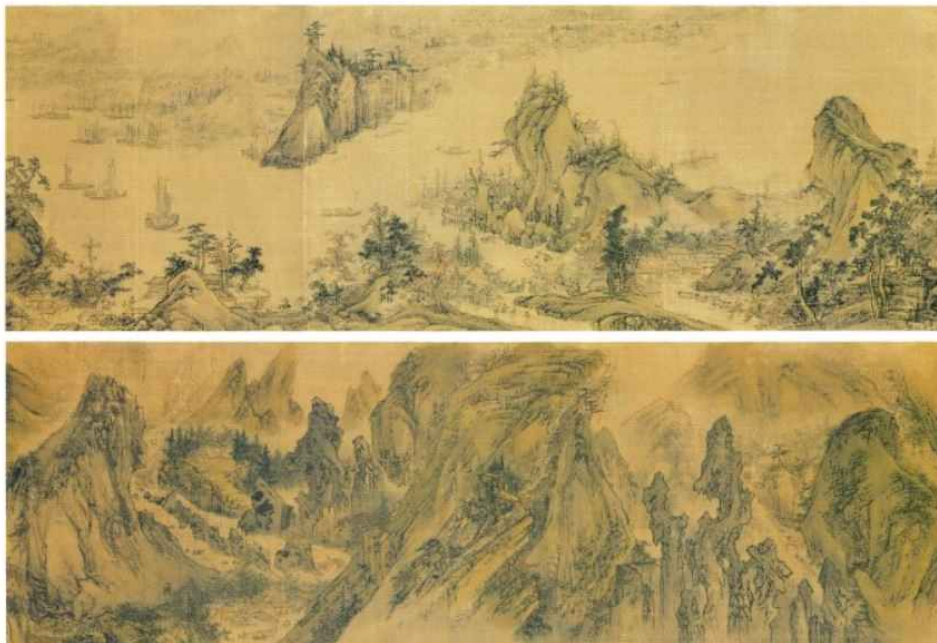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정문경은 약 60점이며, 그 중 전(傳) 논산 정문경은 국보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고,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출토 정문경은 함께 출토된 팔주령(八珠鈴), 쌍주령(雙珠鈴) 등과 함께 국보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정문경 2점은 전(傳) 논산 정문경이나 화순 대곡리 정문경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문양이 매우 장교하고 잘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 철기시대의 늦은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정문경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청동기 제작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2점은 출토지점과 출토정황이 명확할 뿐 아니라 완형에 가깝고 뒷면에 새겨진 문양도 매우 세밀하고 아름다워 우리나라 초기 철기시대 청동기 주조기술을 이해하는데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부분)>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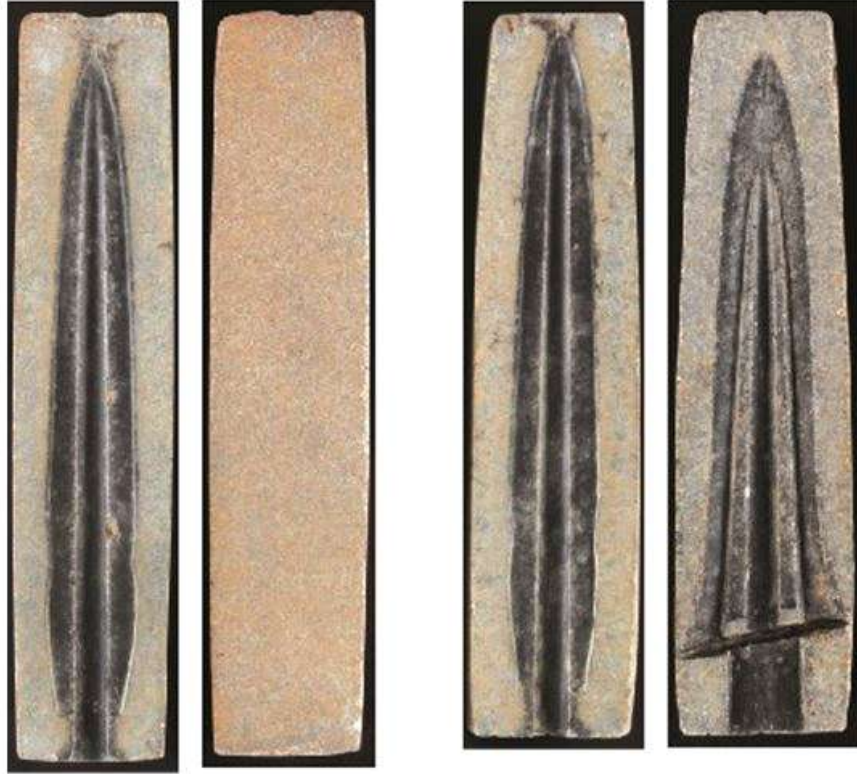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혼개통헌의>(앞면)



<혼개통헌의>(뒷면)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각 앞·뒤면)>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